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예비 자 교 리	평일	06:30 (새벽), 19:00(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수녀님 인사 이동



그동안 구로3동 본당과 신자들을 위해 애써주신 김미리 에블린 수녀님이 새로운 소임지로 가십니다.

수녀님께서 영육 간에 늘 건강하시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알 림

- 02월 27일(일)까지 성지 가지를 성전 입구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2022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5학년 어린이(2022학년)
- 일정 : 03/05~06/18, 첫영성체: 06/18(토)
- 부모님 첫 모임 : 02/26(토) 17:00, 소성전
- 교리 : 소성전 교육관 (토, 14:00~15:30)
- 신청접수/접수처 : 02/05~02/19까지, 사무실(평일 접수)
- 문의 :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 혼인교리 접수 홈페이지 변경 안내

이전주소(가정사목국)	변경주소(서울대교구 사목국)
ihome.or.kr	http://www.samok.or.kr

● 시노드 관련 공지

- 새롭게 태동하는 5지역의 활성화와 시노드 모임을 위해 5지역 형제, 자매들의 많은 참여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임시 5지역 연락처 : 최석준 마르코(010-5715-0392)

●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변경 사항

- 기간 : 2022.01.03~방역 당국의 지침변경 시까지.
-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평일과 주일 미사 참석은 백신 접종 완료 후 180일 이내에 해당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미사 참석자는 백신 3차 접종 확인 도장을 받은 본당 명찰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 신자 분들은 주일 교중미사에만 강당에서 참석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똑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진화론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

- 창조진화론입니다.
- 최초 하느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금도 창조 중입니다.
- 진화 과정에 하느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 정신·물질의 결합으로 저절로 생겨난 창조론은 거부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 거부)
- 창세기 1~3장의 순서대로 창조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적 창조론 거부)

* 돈 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및 직원 모집 *

• 학생 모집

- 대상 : 맞벌이, 이주민, 다문화,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 제공
- 후원 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오라토리오 직원 모집

- 경력단절 및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시간 : 오후 13:00 ~ 오후 19:00
- 문의 : 본당 사무실

● 다음 주일(02/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4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2월 02일 ~ 02월 08일)

교 무 금	7,549,000원
주일헌금	3,624,000원
감사헌금	황정후20만원 최경진10만원 김순길10만원
	서만심 6만원 김○○10만원 송명순 5만원
	함지원10만원 김기에 5만원 최순애10만원
	이복희10만원 김종란60만원 최윤순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2/13	황원선	조홍환	최상림
02/20	유명진	심재순	도현만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2/13	이운영	박승환	박형순	오광운
02/20	장인홍	박용환	최영만	이운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제 4장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

128. 우리 인간이 모두 형제자매라는 확신은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통하여 일련의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이 도전 과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전망을 지니고 새롭게 응답해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국경의 한계

129. 우리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민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출신 국가에서 조성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이는 상명하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

130. 이는 특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온 이들을 향한 몇몇 필수 불가결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이동의 자유와 고용의 기회, 미성년자 보호와 정규 교육의 기회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

131. 오래전에 도착하여 이미 사회 조직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시민권’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권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평등한 권리와 의무 아래서 모든 이가 정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시민권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확립되고, 소외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수자라는 용어의 차별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오용은 적대감과 불화에 이르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발전을 무효화하고 일부 시민에게서 종교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여 그들이 차별을 당하게 만듭니다.

132. 그와 같은 필수 조치를 취할지라도 국가가 홀로 적절한 해결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각국이 내린 결정의 결과는 불가피하게 국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응답은 오직 공동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곧 이민자들의 이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형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대응을 넘어서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계획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에 통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민족들의 문화에 이질적이거나 상처되는 관행과 이념적 전략은 지양하면서, 연대를 기초로 하는 정책을 통하여 그들 출신 국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